

무너진 KIA 마운드 중심을 잡아라



▲서재응(방어율 15.75) 2경기 1패 4이닝 9피안타 4사사구 5탈삼진 7실점
 ▲윤석민(방어율 8.03) 2경기 1패 12와 3분의1이닝 17피안타 6사사구 8탈삼진 11실점
 ▲양현종(방어율 18.00) 2경기 1패 3이닝 2피안타 8사사구 5탈삼진 6실점

서재응·윤석민·양현종 제구력 난조
 사사구 남발... 세 경기 방어율 16.2
 이번주 넥센·한화전서 재건 특명
 우려했던 타선 폭발에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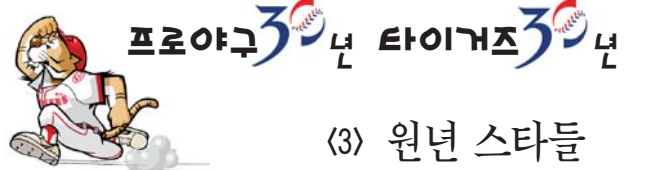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11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7	5	2	0	0.714	-	1패
1 LG	7	5	2	0	0.714	-	4승
3 두산	7	4	3	0	0.571	1	1패
4 KIA	7	3	4	0	0.429	2	1승
4 삼성	7	3	4	0	0.429	2	1승
4 롯데	7	3	4	0	0.429	2	1승
4 넥센	7	3	4	0	0.429	2	1패
8 한화	7	2	5	0	0.286	3	3패

흔들리는 마운드의 중심을 잡아라. 지난주 대전 그리고 잠실 원정길에 올랐던 KIA 타이거즈가 5경기에서 2승3패를 수확하는데 그쳤다. 로제즈·트레비스 두 용병이 특급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됐지만 서재응-양현종-윤석민으로 이어지는 토종 선발진이 붕괴되면서 적지에서 3승을 헌납하고 돌아왔다. '타고투저'를 고민했지만 점차 받아들여진 성적표는 '타율(0.323) 1위, 방어율(6.57) 7위'. 로제즈는 5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8이닝 1실점으로 시즌 첫 등판에서 승리를 쟁겼다. 트레비스도 10일 두 번째 등판에서 2011시즌 첫 완봉승의 주인공이 되며 승리를 신고했다. 하지만 서재응이 2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고, 8일 두산에 상대한 양현종은 만루포를 얻어맞으며 3회를 채우는데 그쳤다. 시즌 첫 등판에서 완벽한 피칭을 자

랑했던 윤석민도 9일에는 5이닝 8실점의 부진한 피칭을 했다. 토종 선발진의 세 경기 방어율은 16.2까지 치솟는다. 제구 난조 속에 사사구가 쏟아지면서 팬들의 원성도 높았다. 삼성과의 홈경기 중간계투로 등판해 밀어내기 불넷으로 3점을 내리쬐던 양현종은 선발로 나선 8일에도 2사 이후 불넷 3개로 만루를 채운 뒤 최준석에게 만루포를 얻어맞았다. 첫 등판에서 사사구를 기록하지 않았던 윤석민도 9일 등판에서는 사사구를 6개나 남발했다. 불펜진의 난조로 어렵게 시즌을 시작한 KIA는 손 쓸 틈도 없이 선발진까지 무너지면서 뼈아픈 3패를 당했다. 불 붙은 타선도 팀을 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든든한 선발진을 바탕으로 6선발 체제로 느긋하게 초반 승부를 펼치려 했던 마운드 작전도 변명이 불가피해졌다.

KIA는 예상과 다른 마운드의 비상 상황이 전개되자 5선발 체제로 전환, 발 빠른 마운드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안방에서 만나게 되는 상대는 넥센과 한화. 올 시즌 약체로 분류되는 두 팀과의 대결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특히 KIA는 지난해 넥센과의 뒷심대결에서 번번이 밀리면서 9승10패로 열세를 보였다. 여기에 넥센은 올 시즌 2.80의 방어율로 개막 이후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전망은 관망다. KIA는 트레비스의 완봉투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여기에 로제즈가 이번 주 넥센과 한화전에 모두 출격이 가능한 상황. 타선에서도 KIA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앞선 7경기에서 넥센(25점)과 한화(24점)는 49득점을 올리는데 그쳤지만 KIA는 0.323이라는 타율로 52점을 쓸어담았다. 테이بل 세터를 구성한 이영구·김선빈은 9점과 8점으로 득점부분 전체 1·2위를 달리고 있고, 타점 1·2위도 이범호(12개)와 김선빈(10개)이 차지하고 있다. 11개의 도루로 기동력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마운드 재정비를 통한 KIA의 반격이 이번주 프로야구 판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회에서 프로야구 창단 감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태 타이거즈 창단 감독을 김용용으로 소개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해태 타이거즈 창단 감독은 '빨간 장갑의 마술사' 김동업이었으나, 전기리그 13경기에서 5승8패의 부진한 성적과 팀 내분으로 총감독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김동업에 이어 광주일고 감독을 지낸 조창수가 34세의 젊은 나이로 감독대행을 맡게 되었다. 시즌 종료 직후 김용용은 미국 유학중 중 급거 귀국해 해태 타이거즈 감독직을 맡아 2000년 삼성 라이온즈 감독으로 옮기기 전까지 해태 타이거즈의 우승 청부사로 카리스마 있는 감독의 전설로 타이거즈 팬들의 가슴에 살아있는 인물이 된다. 결론적으로 해태 타이거즈 창단 출범 시 감독은 김동업이고 조창수 대행을 거치는 과정을 거쳤지만, 한국야구위

김봉연 홈런·김성현 타점왕 김일권 한 경기 5개 도루

원희(KBO)가 발행한 원년의 기록을 정리한 1983년 판 한국프로야구 연감에는 김용용 감독만이 해태 타이거즈의 감독으로 소개되어있다는 것을 참고로 밝혀둔다. 프로야구 원년의 챔피언 결정방식은 전기 우승팀과 후기 우승팀 간의 7전4선승제의 한국 시리즈(당시 공식명칭은 코리안 시리즈)를 펼쳐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이었다. 전기 우승팀은 충청·대전연고의 OB 베어스였고, 후기 우승팀은 경북·대구연고의 삼성 라이온즈였다. OB는 1차전 3-3 무승부, 2차전 0-9 완봉패 후 내리 4연승(5-3, 7-6, 5-4, 8-3)으로 프로야구 원년 챔피언이 되었다. 프로야구 원년을 빛낸 불멸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소개한다. 24승4패7제이브에 22연승의 박철순(OB), 15승11패 12제이브로 구원왕에 오른 황규봉(삼성), 기적의 타율 0.412를 기록한 백인천(MBC), 투수성적 10승5패 방어율 2.89에 타율 0.305 13홈런 69타점으로 타점왕에 오른 다재능한 김성현(해태), 22개의 홈런으로 실업야구 포함 4년 연속 홈런왕에 오른 김봉연(해태), 한 경기에서 5개의 도루를 기록하는 등 53개의 도루성공으로 도루왕에 오른 김일권(해태), 프로야구 첫 사이클링 히어로 기록된 오대석(삼성), 개막전 만루 홈런의 사나이 이종두(MBC), 한국 시리즈 만루 홈런의 사나이 김유용(OB), 올스타 2차전서 3개의 홈런으로 미스터 올스타가 된 김용희(롯데), 학다리로 곡에서 같은 1루 수비의 새로운 장을 연 신경식(OB), 당시는 고령에 속하는 31세로 파워풀한 타격을 보여 준 윤동균(OB) 그리고 안타 홈런 타점 1호의 주인공이자 입심 좋고 인기 많은 이만수(삼성) 등이 프로야구 원년의 주역들이었다. 박철순의 22연승, 백인천의 0.412 타율 및 10승·3할의 김성현의 기록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깨지지 않는 신화로 남아있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사뿐하게 러시아의 안나 데멘티예바가 11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4차 유럽 체조 선수권대회 결선에서 환상적인 평균대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연이틀 멀티 히트

클리블랜드 7연승 견인 타격감각이 완전히 살아난 추신수는 1회부터 적극적으로 방망이를 휘둘렀다. 아스투르발 카브레라의 솔로포로 1-0으로 앞선 1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추신수는 3루수 내야 안타로 1루를 밟았다. 4-0으로 달아난 3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와 깨끗한 중전 안타로 포문을 열었고 올란도 카브레라의 우선상 2루타 때 홈까지 내달렸다. 추신수는 동물적인 감각을 이용해 수비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선보였다. 6-0이던 4회 1사 1.3루 수비 때 저스틴 스모크의 우중간 안타성 타구를 20m 이상 달려가 잡아내며 1점짜리 희생플라이로 막았다. 타격감각이 완전히 살아난 추신수는 1회부터 적극적으로 방망이를 휘둘렀다. 아스투르발 카브레라의 솔로포로 1-0으로 앞선 1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추신수는 3루수 내야 안타로 1루를 밟았다. 4-0으로 달아난 3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와 깨끗한 중전 안타로 포문을 열었고 올란도 카브레라의 우선상 2루타 때 홈까지 내달렸다. 추신수는 동물적인 감각을 이용해 수비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선보였다. 6-0이던 4회 1사 1.3루 수비 때 저스틴 스모크의 우중간 안타성 타구를 20m 이상 달려가 잡아내며 1점짜리 희생플라이로 막았다. /연합뉴스



6회에도 일본인 '타격 기계' 이치로 스즈키가 때린 큼직한 타구를 잘 쫓아 펜스 앞에서 점프해 안정적으로 견어냈다. 클리블랜드는 장단 11안타를 몰아쳐 시애틀을 6-4로 물리쳤다. 시즌 전 끝까지 후회하는 예상을 무색케 한 클리블랜드는 거침없이 7연승을 달리고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선두를 질주했다. /연합뉴스

광양 광영중 여자축구 전국 제패

광양 광영중학교 여자축구부가 '제19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했다. (사진) 지난 10일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광영중은 경기도 매홀중을 결선에서 만나 4대0으로 완승을 거뒀다. 1999년 창단한 광양중 여자축구부는 2003년까지 동아리 형태로 운영해 오다 2004년 기은경(여·32) 감독이 부임한 뒤 본격적으로 팀을 꾸려 매년 전국 대회에서 한차례 이상씩 우승하기 시작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엔탁가구전

4월 30일까지 특별가 판매
 식탁·좌탁·거실TV장·침대

이태리 직수입 → 도소매
 밀라노 5개사 한국총판

신상품
다량 전시

화정동점과 본점상품은 겹치지 않습니다.

ITALY

| 화정동점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역사거리(메디피아 신축병원 옆 400평) | 본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 ☎ 062-226-7567